

300-5-135 신문조서(權榮奎 외 33명 치안유지법 위반) 19

■ 權榮奎 외 33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기록 수록(문서 300-5-119부터 계속)

- 1935년 11월 28일 權榮奎 외 33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조사 공판 5회가 진행되었고, 11월 29일 6회, 30일 7회, 12월 2일 8회 公判이 진행되었다. 12월 4일 朴壽昌, 12월 6일 任澤宰, 8일 鄭龍山, 13일 李順今·韓文洪의 陳情書가 提出되었다. 13일 韓文洪의 公判 기일 송달이 있었고, 李景出의 陳情書가 제출되었다.
- 12월 20일 9회 公判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각자에게 유죄판결이 있었다. 韓文洪 징역 1년 6월, 구류 통산 180일, 단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다. 金大容·金普成·安秉潤 등은 징역 1년 6월, 구류일수 통산 180일, 執行유예 4년(金大容은 3년)을 선고받았다. 徐升錫·李明新·任澤宰·邊雨植·李元鳳·安炳春·金三龍·李星出·鄭七星·李順今 등에게는 징역 2년, 통산 180일이 선고되었고, 徐升錫·李明新·邊雨植·任澤宰 등에게는 刑의 執行이 4년 유예되었다. 李炳驥·李景仙·崔小福·鄭龍山·李百萬·金元經·崔永昌·朴壽昌·金喜鎭·崔慶天 등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구류일수 통산 100일, 李丙驥에서 朴壽昌까지는 刑의 執行이 3년 유예되었다. 沈承文은 징역 1년, 구류일수 통산 100일에 3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다.
- 安三遠 징역 3년, 구류 통산 180일, 李鉉相 징역 4년, 구류 통산 180일, 卞洪大 징역 3년 6월, 구류 통산 180일, 鄭泰植 징역 5년, 구류 통산 180일에 처해졌다. 鄭泰植과 李順今은 控訴신청을 하였고, 나머지는 上訴權포기 신청으로 刑이 確定 되었다. 李順今은 1936년 1월 11일에 上訴取下書를 제출하여 징역 2년, 구류 통산 180일의 刑이 확정되었다. 鄭泰植은 수차 구류기간 갱신이 있었으며, 1936년 10월 19일 1회 公判이 있었고, 10월 31일에 2회 公判이 진행되었다. 11월 1일 鄭泰植은 上訴權포기로 징역 5년에 처해졌고, 구류일수 1審 180일, 복심법원 150일 통산으로 控訴가 11월 12일로 完結되었다.
- 1937년 10월 23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함흥지방법원 검사국으로 기록이 송부되었고, 1942년 8월 1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대심원 검사국으로 기록송부가 있었다. 不起訴事件 기록은 1934년 2월 19일 韓成澤 외 29명의 기록과 8월 6일 李載裕 외 35명의 기록, 8월 10일 金永斗 외 10인의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1936년 10월 19일 치안유지법·출판법 위반 피고인 鄭泰植과 李順今의 刑事控訴 訴訟記錄이 收錄되어 있다.